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2차)

개최일시	2015. 1. 6(화) 16:00~	회의장소	진관 휴게실
참석자 (5명)	서혁(교무처장), 석인선(학생처장), 이외숙(재무처장), 서미옥(예산팀장), 유혜련(외부전문가)		
불참자 (4명)	김미환(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우지수(자연과학대학 공동대표), 임재희(건강과학대학 공동대표), 정새미(대학원 대표)		
안건	2014학년도 추경 예산(안) 심의		
내 용	<p>□ 개회 위원장은 총 9명의 위원 중 과반수인 5명 참석하여 성원이 됨을 확인한 후, 2015년 제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시작하다.</p> <p>□ 회의내용 - 학생 위원의 회의 불참과 등록금 인상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의견을 나누다. 1차 회의 후 공문을 보내어 학생 위원에게 회의 참석을 독려했으나 아쉽게 불참하였고, 2차 회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회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다. 또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등록금 인상 확정안에 대해서는 학교의 최종안이 아니며 등록금은 위원회를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사안임을 말하다.</p> <p>- 위원장은 학생 위원이 참석하지 않았으나 위원회 진행 일정을 감안하여 2차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2014학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고 위원 전원이 동의하다.</p> <p>1. 2014학년도 추경 예산(안) 심의 - 재무처에서 제시한 2014학년도 추경 예산(안) 중 예산 대비 증감이 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다.</p> <p>- 당초 예산 편성시 발생한 운영수지 적자를 일부 기부금 및 국고수입 등으로 충당하려 하였으나 예상보다 저조하였고, 대학원 충원율도 예상에 미치지 못하여 추경 수입이 감소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다. 인건비, 관리비 등 고정 지출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 등록</p>		

금 동결 및 인하로 인하여 수입이 증가하지 않아 재정 적자가 발생하였고, 타 학교들도 본교와 같이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다. 학교의 재정구조상 다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적극적 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고 말하다.

- 추경에 편성된 예비비와 이월금에 대하여 질의하다.

- 예비비는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계정이 확정되지 않은 예상 가능한 지출에 대비하여 편성하는 것이며, 이월금은 학생들이 등록금 인하 요인으로 주장하는 등록금 미사용 잔액이 아니라 시점상 사업이 회계연도 내에 종료되지 못해 자금집행이 3월로 이연된 자금이거나 국고, 기부금, 연구비 등 사업집행기간이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아 이월된 자금 등이며, 상당부분은 이자의 선급법인세를 회계상 이월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라 설명하다.

- 예비비를 적정하게 편성하여 미집행 예산을 최소화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다.

- 장학금 예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다.

-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교내장학금은 계속 확충하고 있어 주요 대학 중 교내장학금 지급 비율은 높은 편이라 설명하고, 교외장학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외장학금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다.

- 보수 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다.

- 인건비는 인원수의 증감보다는 채용 시기 및 신규, 퇴직교원의 급여 차액이 큰 영향을 주었고, 인센티브 감소 및 퇴직수당지급이 내년으로 이연되었기 때문이라 설명하다.

- 건축비가 감소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다.

- 기숙사, 의대 건물 신축 공정이 당초보다 지연되어 2014년 공사비 지출이 감소하였으며, 토지 및 건축의 재원은 기금을 사용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다.

- 추경에서 예산 대비 운영수지 적자가 증가하였는데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질문하다.

- 재정수지가 악화된 가장 큰 요인인 2009년부터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로 전환된 것이라 설명하고, 기부금확대와 다각적인 수입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나 건축이 아닌 경상적인 운영을 위한 기금 모금도 쉽지 않아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 외부 위원이 외부 기업에서는 각 부서에서 연초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아닌지 의견을 제시하다.

- 학교의 특성상 단과대학의 수입, 지출을 연계하여 기업과 같은 책임 경영 구조를 도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는 자율경영 방식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 답하다.

- 외부 위원은 대학 경영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기관장을 포함한 내부 구성원이 학교 재정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을 제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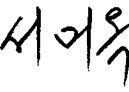
- 주요 보직자 회의를 통해 학교 재정을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기금에 대해서도 더 많은 구성원이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 학교에서는 매년 1-2월에 지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기업에서 운영하는 예산 집행 관리 방식을 질의하다.

- 기업에서는 분기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연말에 지출이 집중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다.

- 학교에서 분기별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학기별 예산 운영은 고민해 볼 수 있겠다고 답하다.

- 위원장이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확인하다.

	<p>2. 의결 사항</p> <p>- 전원 동의하에 2014학년도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p> <p>3. 다음 회의 내용</p> <p>- 2015학년도 등록금 심의를 위한 예산(안)을 검토하기로 하다.</p> <p>□ 폐회</p> <p>위원장은 3차 위원회를 1월 12일(월) 16시에 개최하기로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p>					
확 인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15년 1월 6일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서 혁		위 원	석인선	
	위 원	이외숙		위 원	서미옥	
	위 원	김미환	불참	위 원	우지수	불참
	위 원	임재희	불참	위 원	정새미	불참
작성 자	예산팀 이 은 정					